

이소영의 우리 지역, 우리 식물



봄으로 가는 길, 광양 매화마을

우수가 지나고 우리는 이제 막 봄의 문을 열었다. 올해는 예년보다 유난히 봄꽃의 개화가 빠르다. 복수초와 수선화도 모자라 남쪽에서부터 풀과 나무 가릴 것 없이 다양한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봄이란 계절을 떠올릴 때 그리는 풍경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누군가에게 봄이란 이름은 화려한 튜リップ 펼쳐진 풍경을 떠올리게 할 테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로수 왕벚나무가 꽃을 피운 풍경을, 또 누군가에게는 민들레가 콘크리트 사이에 피어난 풍경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나에게 봄은 매화가 피어난 풍경을 떠오르게 한다. 다 가지지 않은 황량한 풍경 속에서 팝콘을 담은 꽃이 가지마다 자갈히 피어난 모습은 봄의 정체성 그 자체가 아닐까 싶다.

매화, 다시 말해 매실나무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은 아니다. 이들은 중국 원산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주변에 널리 심겼다. 그 덕에 우리가 매화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도심과 외곽 가릴 것 없이 많으나, 나는 왠지 '매화' 하면 어김없이 광양 매화마을을 떠올리게 된다. 이삼년에 한 번은 꼭 광양에 가 매화를 관찰했고, 그와 함께 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매화는 내게 봄을 여는 열쇠이고 그 열쇠를 찾으러 나는 광양에 가는 것이다.

매화는 매실나무의 꽃을 가리킨다. 꽃을 관상하는 목적에서 심어진 경우 매화나무라고도 부르지만 국가 표준 식물 목록상 추천하는 정명은 매실나무다. 우리

가 매실나무와 매화나무 중 이름을 선택하는 기준은 꽃과 열매 중 어떤 부위를 중점으로 이용하기 위해 심었는가의 문제인 셈이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매실나무는 2-3월에 꽃을 피우고 5월 즈음 꽃이 진 자리에 연둛빛 등그스름한 열매를 맺는다.

매실나무가 속한 장미과 벚나무속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벚나무 종류와 살구나무, 앵도나무, 복사나무, 자두나무 등이 있다. 이들도 이른 봄꽃을 피우지만 매실나무가 그중 개화가 가장 빠르다. 꽃을 빨리 피우는 만큼 열매도 가장 빨리 맺는다. 나는 매실나무를 가리켜 '정원의 트렌드 세터'라 부르고 싶다. 누구보다 계절에 앞서 가기 때문이다.

매실나무의 열매는 다른 유실수와 마찬가지로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 제 색으로 익는다. 그러나 인간은 이들이 스스로 다 익을 때까지 그냥 두질 않는다. 우리는 다 익지 않은 열매를 따 매실액, 매실주 등을 만든다. 생과로 먹지 않을 뿐 어느 과일만큼 효용성이 높다.

매화 축제가 열리는 광양 매화마을에는 인간에게 열매를 제공하기 위해 심긴 나무들이 살고 있다. 식물에게 있어 꽃은 씨앗을 번식하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옵션에 가깝다. 그러나 매화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매실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꽃이다.

매화 축제 기간, 광양 매화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달콤하면서도 향긋한 꽃내음이 난다. 가지에 붙은 수많은 꽃송이 덕에 공기에서마저 향이 나는 것도 같다. 불어오는 봄바람에 실린 향기에 취해 마을을 오르면 어느새 매실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가 나온다. 나는 늘 마일로 올라갈 때 한 번, 내려갈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 매실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 매화 축제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매화가 피는 시기 밖의 풍경은 삭막하기 그지없다. 멀리에서 보면 황토색 겨울 풍경에 매화마을 주변만 화사해 이 모습이 이질적으로도 느껴진다. 매화를 보러 온 사람들의 얼굴 또한 유난히 밝다. 황량함을 뚫고 피어나는 매화가 옛사람들한테 용기와 도전을 북돋아 주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봄은 참 재밌는 계절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는 복수초가 피었다는 기사를 볼 때, 꽃집에서 수선화 화분을 만날 때, 입춘이 된 순간...수시로 봄을 떠올리지만, 사실상 봄꽃이 피고 연둛빛 잎이 돋는 전형적인 봄 풍경은 4월 말이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점에서, 어쩌면 봄은 실제 경기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긴 계절이 아닐까 생각했다.

오는 3월 8일에도 어김없이 광양 매화축제가 열린다. 나는 그곳의 매화를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식물 세밀화>

社說

광주 '스포츠 축제도시' 경쟁력 충분하다

광주시가 '2024년 스포츠·관광분야 업무보고회'를 갖고 시민 누구나 1년 내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365일 스포츠 축제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365일 스포츠 축제도시에는 스포츠·문화·관광 3개 분야를 버무린 6개 대표 사업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금 당장부터 스포츠를 지역 축제 등 문화와 연계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프로 스포츠는 외지인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콘텐츠인데 광주는 타이거즈라는 전통의 인기 프로야구 구단이 있어 어느 도시보다 경쟁력이 있다. 프로축구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 하지만 지난해 광주 FC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올해 광주에서 처음으로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가 열린다. 그만큼 경기를 보러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는데 이를 지역 문화축제와 연계해 관광객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스포츠가 있다. 스포츠와 휴가

를 연계한 '스포츠키아션', 스포츠로 경계를 활성화하는 '스포노믹스',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스포테인먼트' 등 3대 전략의 핵심이 스포츠다.

올해는 프로 스포츠 흥 경기 외에 전국 수영선수권대회, 생활체육 탁구대회, 전국파크골프대회도 광주에서 열리는데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광주비엔날레, 충장축제 등과 연계한 투어 상품도 운영하기로 했다. 영주 승마장을 이전하는 자리에 풋살장과 테니스장 등 실내형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영주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테인먼트 공간으로 단장하는 계획은 광주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도반길이다.

광주시의 스포츠 축제도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스포츠를 관광 등 광주만의 콘텐츠와 잘 융합하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복합쇼핑몰이 아니라 광주가 '노점 도시'의 오명을 벗고 '꿀잼 도시'로 변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상권 활성화에 도움

광주시 동구가 금남로(1~2가)를 매월 한 차례씩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부 상인들의 반대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동구는 금남로를 보행자 중심의 열린 광장으로 만들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인들은 도로 통제가 따른 상권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동구는 지난달부터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운영 TF'를 꾸리고 금남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수준으로 정기적으로 금남로1가 540m 구간부터 총장로1가 입구까지 540m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차량이 통제된 금남로에서 주기적으로 예술·문화 행사를 열어 문화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이전에 광주시가 금남로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려 했던 때

와 같이 반대하고 있다. 충장축제나 5·18 행사에서 도로를 통제하던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월 1회 이상 통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명분도 없으며 차량 통행을 막을 때마다 지하도상가는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찰도 행사가 열릴 때마다 교통 관련 민원을 감내했었는데 통제 주기가 늘어났다면 그만큼 교통 대책도 수립해야 하고 인력도 충원해야 한다며 난감해 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총장로 상권은 오래전부터 붐과 수준으로 심각하게 무너졌다. 광주보다 못했던 대전 원도심 상권은 다양한 거리 공연 등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다소 불편하고 당장 매출에 조금 영향이 있더라도 대중적 차원에서 시행해 분다면 장기적으로 상권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동구도 시행 전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상권도 살릴 수 있는 묘안을 찾기 바란다.

의료칼럼

녹내장 환자의 흡연과 음주



기홍석 안과의원 원장

녹내장이란 진행되는 시신경 병증으로 특징적인 시신경의 형태학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시야 결손의 기능적 변화를 보이는 질환들의 총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풀어 말하면,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해주는 시신경이 안압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죽어가면서 시야의 결손을 초래하는 안질환이다.

현재 녹내장은 전세계적으로 항반변성, 당뇨병 망막증과 더불어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실명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녹내장은 40대 이후에 잘 발생한다. 유병률은 100명 중 2명 정도 발생하는 질환으로 결코 드문 질환은 아니다. 그런데 초기 녹내장은 눈에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40대 이후에는 눈 건강 차원에서 안과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녹내장은 단일 질환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임상소견

과 병리소견을 보이는 질환군이기 때문에 원인도 한가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치료 또한 안압 하강, 시신경 보호, 혈류 개선 등 여러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안압 하강만이 유일하게 지속적인 시신경 손상과 시력 기능 손실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여러가지 항녹내장 약제들의 개발과 녹내장 레이저, 수술 기법의 개발 및 발전으로 많은 녹내장 환자들이 실명이 이르지 않고 건강하게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다.

녹내장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지만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충분히 실명을 예방할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녹내장 환자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흡연과 음주에 관한 것이다. 먼저 흡연은 녹내장 환자에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담배 성분 중 하나인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량을 줄여 시신경 손상을 가속시킨다. 또 흡연의 결과로 생기는 타르는 발암 물질이다. 이 타르도 시신경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

하다. 흡연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혈관내에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체내 조직의 산소 공급을 저하시킨다. 결국 흡연은 시신경에 산소 공급도 저하시켜 시신경 손상을 가속화한다. 이렇듯 흡연은 이중 삼중으로 시신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시신경을 손상시켜 녹내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음주는 어떨까. 흡연과 달리 조금 복잡하다. 사실 성분으로만 이야기하면 적은 양의 음주는 혈관을 확장하는 알코올 성분의 특성상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음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수분이 체내에 들어가게 되어 안압을 올리게 된다. 또한 과음에 의한 약을 빼먹을 확률이 높아 치료를 제대로 못하게 될 것이다. 말기 녹내장 환자와 수술 환자에서 음주는 실명의 가능성을 9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녹내장 환자는 금연은 물론이고 술에 대한 부분도 과하면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주는 반드시 필요한 생활 수칙이라고 할 수 있다.

기고

시 암송으로의 초대



문길섭 시암송국민운동본부 대표

시 암송을 처음 경험한 건 중학생 때였다. 2학년 때 급습머리 삼업 선생님이 수업 중에 시를 외워보셨다며 소월의 '초혼'을 읊으셨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엔 김용호의 '오월의 유혹', 유지환의 '깃발', 운동주의 '별 헤는 밤' 등이 실려 있었다. 어느 초여름, 문학을 좋아했던 친구와 저녁 무렵 광주 교외 어느 저수지 산책을 갔었다. 친구는 저수지 가에 있는 편평한 돌에 앉더니 조용한 음성으로 운동주의 '별 헤는 밤'을 포박포박 외었다. 무언지 모를 신비감에 싸인 채 말없이 저문 들길을 함께 걸어 돌아왔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ROTC 장교로 임관하여 전방에서 보충 소대장으로 복무했다. 예비사단이라 상급 부대의 검열이 많아 늘 긴장 속에서 보내야 했다. 이때 푸쉬킨의 '삶'이란 시가 떠올랐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지난 것은 그리워한다"는 구절이 위안을 주었다. 이 시를 읊조리면서 내 병사들에게도 소개하고 외우게 했다.

프랑스 유학 중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숙제라고 들고 온 것이 '시 외우기'였다. 매주 한 번, 유일한 숙제

였다. 이 숙제는 초등 졸업 때까지 계속되었다. 귀국 후 지인 한 분이 전화로 시를 몇 편 외워 주었다. 듣자니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 일주일에 한 편씩 외우기로 결심하고 외워나갔다. 암송 시가 늘어갈수록 성취감이 높아지고 즐거움이 생겼다. 이 행복을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 '시암송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좋은 시를 소개하면서 암송 운동을 시작했다.

암송 운동을 하면서 여러 책과 강연과 자료를 통해 우리 시대의 뛰어난 스승들도 시 암송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을 알게 되었다. 덕분에 이 일에 더욱 마음을 바치게 되었다. 몇 분의 시암송 사랑 고백 글을 소개한다.

"철학책을 읽고 시를 외웠다."("흔불" 작가 최명희 선생), "시를 읽 때마다 찾아오는 그 가슴 울렁거리는 청춘의 기쁨!"(박완서-작가), "시 감상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건 시 외우기이다."(나태주-시인), "시 암송은 따뜻한 일상적 삶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다."(피천득-수필가), "한 편의 시 암송은 마음에 꽃 한 송이 꽂는 일이다."(이여령-전 문화부 장관) "시 암송은 아이를 창의적인 인재로 이끄는 지름길이다."(김용규-철학자) "시를 읽거나 암송하다 보면 '참 좋다' 할 때가 있다. 이때 뇌에서는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시는 마음의 약이기도 하다."(이무석-전남대의대 정신과 명예교수)

시를 굳이 왜 외워야 하는지, 무슨 이들을 위해 '시를 외우면 좋은 12가지 이유'를 정리해 봤다.

1) 자연, 인정, 지혜와의 깊은 만남을 갖게 한다. 2)

암송시는 평생 친구가 된다. 3) 자투리 시간을 선용할 수 있다. 4) 단조로운 일을 할 때 동시에 할 수 있다. 5) 모임에서 노래 대신 할 수 있다. 6) 함께 외우면 친밀감을 높여 준다. 7) 암송 시는 선물로 활용할 수 있다. 8) 바쁘고 고운 말하기에 도움이 된다. 9) 좋은 글 쓰기에 도움이 된다. 10) 성취감을 갖게 해 준다. 11) 상상력을 높여 준다. 12) 뇌세포의 활성화로 치매를 예방해 준다.

이 밖에도 암송의 직접적인 쓸모에 대한 얘기도 있다. "암송이란 작가와 암송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암송을 통해 작품에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범대순·시인 전남대 영문과 교수 역임), "암송하면서 학생들은 작가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며 문장의 의미는 물론 흐름을 알게 된다."(이항아·시인 호남대 국문과 명예교수)

교육받은 프랑스인과 독일인은 명시 100편쯤 암송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300편의 시를 외우게 한다는 말을 듣고 부러웠다.

우리나라 국민도 암송을 가까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가을부터 '2년 안에 좋아하는 시 열 편 외우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각계각층, 남녀노소 구분 없이 100여 명 이상이 동참하고 있다. 새봄에 의미 있는 일 하나 시작하고 싶다면 시 암송을 해 봐도 좋겠다. 분명히 보람을 느낄 것이다. 캠페인 동참을 희망하는 분께겐 휴대용 작은 시선집(50편 수록)을 선물로 보내드리겠다. (joywriting@hanmail.net)

無等鼓

"당신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화를 겁니다"로 시작되는 마중기 시인의 시 '전화'를 좋아한다. 몇년 전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중인 그가 '평범한 사람' 등 시 같은 가사를 쓰는 가수 루시드 폴과 서간집을 냈다는 소식에 궁금증이 일었다. 36년의 나이를 뛰어넘은 두 사람의 편지가 담긴 '아주 사적인, 긴 만남'과 '사이의 거리 만큼, 그리운'을 읽으며 격의 없이 수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이 부러웠다.

주일대사 등을 지낸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와 10대 때부터 글쓰기로 유명한 김현진의 시집이다. 김 씨의 도발적 질문과 "그저 나 이 많은 사람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라"며 견네는 라 교수의 글에서 41살이라는 나이 차는 의미가 없다.

44년생 안도 출신 고(故) 황광수 문학평론가와 76년생 서을 출신 정여울 작가의 기록인 '마지막 왈츠' 역시 오랜 우정을 보여주는 책이다.

세대를 넘어서는 아름다운 우정과 공감은 음악계에서도 만날 수 있다. 아마도

대표주자는 아이유일 듯하다. 그는 김창완이 피쳐링에 직접 참여한 '너의 의미'를 비롯해 이병우가 작곡한 양희은 곡 '가을아침', 정미조의 '개여울' 등을 불러 세대가 함께 즐길 노래를 만들어냈다. 며칠 전 발매된 아이유의 미니앨범 '더 워닝' 중 '쉬(Shh)'는 아이돌 뉴진스의 헤인과 좋아하는 밴드 톨리코스터의 조원선이 피쳐링했다. 더불어 30살의 아이유가 직접 편지로 참여를 부탁했다는 86살의 패티김이 내레이션을 했다.

각기 다른 세대의, 세 명의 가수 목소리에 어지는 "모두가 다 아는, 그러나 또 모르는" 그 이 시간집 '가장 사소한 구원'도 인상깊었던 책이다. 김 씨의 도발적 질문과 "그저 나 이 많은 사람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라"며 견네는 라 교수의 글에서 41살이라는 나이 차는 의미가 없다.

44년생 안도 출신 고(故) 황광수 문학평론가와 76년생 서을 출신 정여울 작가의 기록인 '마지막 왈츠' 역시 오랜 우정을 보여주는 책이다. 세대를 넘어서는 아름다운 우정과 공감은 음악계에서도 만날 수 있다. 아마도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장 崔宰豪, and contact information.